

중국발 악재... 세계증시 강타

중국발 글로벌증시의 동반 폭락 현상이 국내 증시를 강타했다.

지난달 28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37.26포인트(2.56%) 하락한 1,417.34로 마감했다. 장중 1,400선이 붕괴되기도 했으나 개인투자자의 매수에 힘입어 1,400선이 유지됐다. 코스닥 지수도 낙폭을 만회해 전날보다 10.59포인트(1.73%) 하락한 600.93으로 마감했다.

◇중국발 직격탄에 세계증시 폭락 = 중국 증시의 급락 여파로 투자자들의 투매 현상이 빚어지면서 국내 증시뿐 아니라 글로벌 증시도 동반 급락했다. 일본의 닛케이평균주가가도 전날보다 2.8% 가량 하락한 17,604.12로 마쳐 5일 만에 18,000선이 무너졌다.

이미 전날 뉴욕 증시도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등 3대 지수가 일제히 3% 이상 하락하는 급락세

중 금리인상 가능성에 美·표·유럽 폭락 도미노 코스피 한때 1,400선 붕괴... 당분간 조정 국면

를 보였으며 유럽 증시 역시 광산주 중심으로 동반 급락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글로벌 증시가 동반 급락한 것은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과 중국의 위안화 절상 및 금리인상 가능성이 부각된 데서 촉발됐다고 입을 모았다.

◇당분간 조정 불가피 = 대다수 증권전문가들은 이 같은 중국발 악재가 국내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이 실현 압력을 감안할 때 당분간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다만 급락이 아닌 숨고르기 국면에 무게를 뒀다.

전대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의 상승폭이 크지 않다는 점과

외국인 및 연기금 등의 수급 기반이 양호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증시는 3월에 숨고르기 국면을 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저가매수 기회 탐색할 때 = 국내 증시는 중국, 미국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덜 올라 아직도 가격매력이 높다는 점에서 추가 하락폭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 증시의 급락도 간혹 우려보다는 장기 상승에 따른 차이 실현 욕구가 더 큰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패닉상태가 계속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중국 증시의 조정은 상대적으로

소외돼 국내 증시에 대한 매력을 높이고 해외펀드로 자금유출을 막아 국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 저가매수에 나서는 전략이 유효하며, 며칠 더 상황을 지켜본 뒤 매수에 나서는 것도 좋다고 전문가들은 제안하고 있다.

◇조선·은행·철강·정유·증권업종 매력 부각 = 이번 증시의 조정은 최근 급등해 추격 매수하기가 어려웠던 조선, 은행, 철강, 정유업종에 대한 매수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증권 이정호 리서치센터장은 “1·4분기에는 코스피지수가 1,400~1,550에서 움직일 것이다”고 전망하고 “해운, 건설, 조선, 반도체 등 가격매력이 있고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경상수지 5개월만에 적자

1월중 5억1,000만불 해외여행 크게 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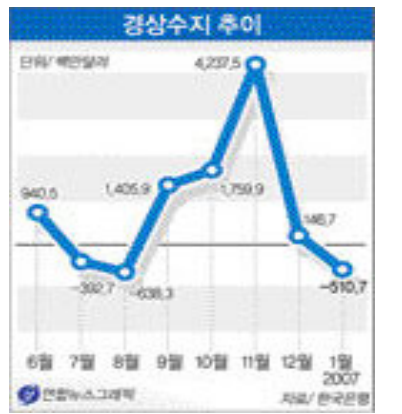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해외여행에 따른 외화유출이 크게 늘면서 지난달 경상수지가 5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여행수지 적자는 월간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에 따라 서비스수지 적자도 5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2007년 1월 중 국제수지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경상수지는 5억1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5개월 만에 적자로 반전됐다.

경상수지는 지난해 8월 6억4천만달러 적자에서 9월 14억달러 흑자로 전환된 뒤 10월 17억6천만달러, 11월 42억4천만달러, 12월 1억5천만달러로 4개월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갔다.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것은 전월에 비해 수출은 크게 줄어든 반면 수입은 늘어나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급감한데다 해외여행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수출은 281억2천만달러로 전월보다 6억5천만달러 줄었으며 수입은 277억8천만달러로 전월의 275억1천만달러보다 소폭 증가했다.

이에 따라 상품수지 흑자규모는 전월보다 7억4천만달러 줄어든 12억1천만달러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2월 8억4천만달러 이후 11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서비스수지는 여행서비스 지급이 늘어나면서 적자규모가 19억4천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2월보다 적자 규모가 6천만 달러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의 20억9천만달러 적자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연합뉴스

코스피

37.26 P

코스닥

10.59 P

“대형 마트 영업시간 규제보다 중소·영세상인 경쟁력 갖춰야”

김영주 산자부 장관 밝혀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최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대형 마트를 규제하려는 입법과 관련, “(대형마트 규제보다는) 중소·영세상인들이 경쟁력을 갖게 해주는 것이 정답”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SBS라디오 ‘김신명속의 SBS전망대’에 출연, 대형 마트 규제 입법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아울러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배치되는 점도 있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유통산업 발전과 소비자 후생”이라고 강조하고 다만 “합당한 지를 연구해서 6월(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논의의 진행 상황을 전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진행상황에 대한 질문에 김 장관은 “8차 협상에서 타결 가능성이 커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양제철·외주파트너사 노사평화 선포

드림피아 등 광양제철 6개 외주파트너사 노·사는 지난달 28일 광양시민광장에서 이성웅 광양시장, 허남석 광양제철소장, 서석주 광주지방노동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항구적 노사평화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사문제 해결 등을 결의했다.

드림피아 등 광양제철 6개 외주파트너사 노·사는 지난달 28일 광양시민광장에서 이성웅 광양시장, 허남석 광양제철소장, 서석주 광주지방노동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항구적 노사평화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사문제 해결 등을 결의했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kwangju.co.kr

보고 듣고 즐기는 화상통화 시대

KTF 오늘부터 서비스 개시 영상·데이터 통화요금 인하

KTF가 1일부터 세계 최초로 HSDPA(고속하향 패킷접속) 전국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를 위해 KTF는 신규 브랜드 ‘쇼’를 출시하는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상통화 요금과 일부 데이터통화료 등을 인하했다. 또 3월부터 HSDPA 전용 단말기 3

종을 출시하고 연말까지 30여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가입자 목표는 270만명으로 잡았으며 가입자당 월평균 매출도 2세대 서비스에 비해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KTF 조영주 사장은 28일 서울 광화문 정보통신부 15층 식당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3월부터 HSDPA 전국 서비스를 개시, 올 연말까지 KT 재판매를 포함해 총 27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주 사장은 올해 HSDPA 전체

가입자를 500만명으로 추산하고 이 가운데 KT그룹 차원에서 270만명을 확보, 전체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으면 1위 사업자로 충분히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KTF는 HSDPA 전국 서비스 개시를 기점으로 기존 CDMA와는 차원이 다른 신개념 WCDMA 브랜드 ‘쇼(SHOW)’를 출시하고 기존 CDMA에서는 이용할 수 없었던 ‘보고 느끼고 즐기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합뉴스

“새로 산 휴대전화 중고품인지 확인하세요”

사전 개봉 드러나면 보상

앞으로 휴대전화를 새로 구입했을 때 이 단말기가 사전에 개봉됐는지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고, 중고 단말기로 확인될 경우에는 피해보상도 받게 된다. 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단말

기 개봉 이력 조회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고 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통신위는 또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단말기 공개에 따른 이용자 피해 보상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사업자별 이용약관에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회장 조남홍 기아차 사장 선임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제19회 정기총회를 열고 기아자동차 조남홍 사장(사진)을 제13대 회장으로 선임했다. 신임 조 회장은 2년간 회장직을 수행하게 되며, 앞으로 정책간담



회 자동차 관련 대외행사에 자동차업계 대표로 참여하게 된다. 비상근 부회장은 현대자동차 최재국 사장, 감사에는 GM대우 이영국 사장이 각각 선임됐다. /이종대기자 jilee@kwangju.co.kr

광주전남 이용기능장 1호

기술 12년 경력의 최고실력자 **이수재** 원장 직점시술관리

가발

심는가발 탄생!!

대형가발 전문 시술소

대머선님녀 프리모 가발맞춤

정소 침소 침소 침소

남녀 안면도

신공침소 침소 침소 구석침소

미미로봇이 한방에 다 만드

미미로봇

미미로봇이 한방에 다 만드